우리 복지관은 지금 4.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르신들의 약속



에코스테이션의 상시 운영을 돕고 있는 '에코푸리봉사단'의 모습.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층에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재순환 거점센터 '에코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에코스테이션은 일반 가정에서 분리배출이 까다롭거나 처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기 쉬운 생활 자원을 수거해 다시 쓰임이 있는 새활용 자원으로 연결하는 주민 참여형 실천 공간이다.

주민들이 에코스테이션에 새활용 자원을 제출하면 세제, 샴푸 등 생활용품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 '참여-보상-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동력으로, 한 달 평균 거래 건수는 500건에 이를 만큼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공간을 지켜 오고 있는 주체는 복지관의 '에코푸리봉사단'이다. 에코푸리봉사단은 에코스테이션 상시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원 재순환 과정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자원 재순환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 캠페인, 업사이클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지역 환경 보호 활동을 이끌고 있다.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공감에서 출발한 이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세대 간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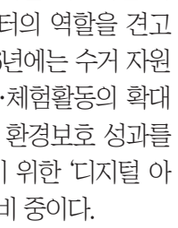
그 결과, 현재까지 에코스테이션을 통해 수거된 새활용 자원은 약 7.5t에 달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약 12~15t을 감축한 효과로, 소나무 약 2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비슷한 수치다. 또한 수거된 자원은 분리·선별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약 300만원)은 지역 내 복지시설에 기부됐다. 자원 순환을 통해 만들어진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며, 환경보호와 지역복지가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에코스테이션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임과 동시에 깨끗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가꿔 나가는 것이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에코스테이션은 올해 운영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 재순환 거점센터의 역할을 견고히 하기 위해 2026년에는 수거 자원 품목·환경 캠페인·체험활동의 확대와 어르신 주도의 환경보호 성과를 기록하고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을 지역 환경 실천의 주체로 세우고 일상의 작은 실천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자 한다. 수거 자원과 캠페인, 체험활동의 결과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아, 세대를 잇는 환경 실천의 기반이 될 예정이다.

여전히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러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지역의 공공 플랫폼으로 복지관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에코스테이션은 세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문을 열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혁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대리

대만불교 포교일기 ② 구급의 자비, 교육의 복지

사찰, 자선단체 역할 넘어 배움의 도량 돼야

불교의 자비(慈悲)란 '여락발고(與樂拔苦)'를 의미한다.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慈] 고통을 뿌리 뽑아 없애주는 것[悲]이다.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불교의 핵심 정신이자 수행자가 세간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대만 불광산사에서 수행하며 창건주 성운 큰스님(星雲大師)의 '구급불구빈(救急不救貧)' 철학을 통해 이 자비의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불광산사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선과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것이 사찰 최우선 중점사업은 아니다. 불광산사가 지향하는 근본은 문화와 교육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인간불교'의 실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바로 생명이 위태로운 재난의 현장이다. 불광산사는 평소 자선사업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재난 구호 활동만큼은 그 어느 단체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이것이 바로 '구급불구빈'의 실천적 핵심이다. 급박한 재난[急]에는 즉각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고통을 멎게 하되, 가난[貧]은 단순한 물질 배분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1999년 대만 '921 대지진' 당시, 불광산사는 가장 엄격한 참선 정진 기간이었으나 재난 소식에 모든 스님이 수행관 문을 박차고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도량에는 필자를 비롯한 어린 동자승들만이 남아 절을 지켰을 정도로 전 대중이 구호 활동에 투신했다. 재난은 '급박한 상황'이기에 수행의 형식을 따지기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가르침을 그때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구급 상황서 신속·적극 자비의 손길
가난 끊기 위해 물질 지원보다 교육
성운 스님 가르침, 불교복지 귀감으로

이러한 적극성은 종교와 신분의 벽도 허문다. 2009년 '88 수재' 당시 불광산사는 이재민 센터를 운영하며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인 고산족 원주민들을 품었다. 특히 성운 큰스님께서는 이재민들이 사찰에 머물며 '기인리하(寄人籬下)', 즉 남의 집 처마 밑에 붙어 지낸다는 위축된 마음이나 소외감을 추호도 느끼지 않게 하라고 엄격히 당부하셨다. 필자는 당시 물자 담당자로서 현장을 지켰는데, 대중 스님들은 이재민들과 함께 자고 먹으며 고락을 같이했다. 사찰 내에서 기독교 예배가 거행되고, 심지어 도량 안에 이재민들을 위한 흡연 구역까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동사섭(同事攝)의 현장은 구급 순간에 조건 없이 하나가 되는 불광산사의 자비 정신을 증명했다.

하지만 긴급 구호가 끝난 뒤 큰스님께서는 수해 지역의 건물 복구보다 도서관 중건에 전력을 다하셨다. 밥 한 그릇은 한 끼의 허기를 채우지만, 교육은 일생의 가난을 끊어 내는 근본적인 처방이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필리핀 태풍 수해 때도 대중들이 밤새워 물자를 준비하며 정진했던 이유는, 그 긴급한 고통을 빨리 덜어 줘야만 이재민들이 다시 배움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비는 눈물로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지혜는 그 눈물을 닦고 스스로 걷게 하는 힘이다. 구급(救急)의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게 투신하고, 불구빈(不救貧)의 안목으로 교육의 토대를 닦는 불광산사의 모델은 오늘날 한국불교에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본다. 사찰이 단순히 자선단체의 역할을 넘어, 대중의 무명을 밝히고 자립의 지혜를 가르치는 '배움의 도량'이 될 때 부처님의 자비는 비로소 이 땅 위에 흔들리지 않는 복지의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⑥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 풍경

손등과 손바닥을 한눈에 볼 수 없다. 피카소 같은 입체파 화가의 그림에서라면 모를까. 문의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없다. 그런데 보았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에서. 이 대웅전의 문은 밖에서 안으로 밀어 여는 문이다. 문의 안과 밖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의 전면은 5칸인데 칸마다 2짝씩 모두 10짝의 문살에 연꽃, 모란, 국화를 새겨 올렸다. 사진에서 보듯이 어간은 빗교살 위에 활짝 핀 여섯 잎의 꽃을 새기고 육모 테두리를 잎으로 감싼, 품이 많이 든 정교한 꽃살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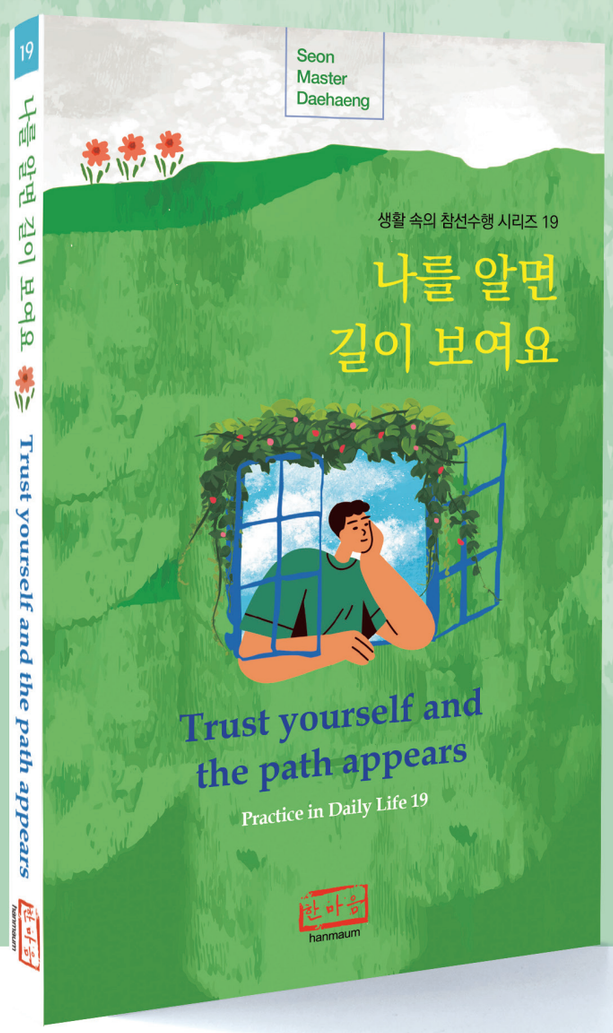
이 대웅전은 북쪽으로 앉았다. 한국 전통 건축의 남향은 집 안으로 빛을 오래 들이기 위한 필요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대웅전은 관습과 실용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터의 남쪽이 산으로 막혀 있고 북쪽이 열렸기 때문이다. 절 뒤 좌우 계곡이 북쪽으로 흐르고 앞에 저수지가 있으니 '배산임수'가 되겠는데, 어설픈 풍수쟁이 흉내는 이쯤에서 멈춘다. 절 북쪽에 마을, 서북쪽으로 논산시가 지척이다. 그것이 북향의 이유다. 세상 등지고 앉은 부처님은 없다.

이 글에서 '논산 쌍계사'라고 쓰면서 몹시 불편했다. 만약 지리산 쌍계사였다면 굳이 '하동'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고약한 태도인가. 사실 정도 차이일 뿐, 인간의 인식 대부분은 그렇게 전도돼 있다. 피카소보다 앞서 쌍계사가 북향으로, 꽃문으로 그것을 일러 주었다. 내외불이, 자타불이, 성속불이…. 아득히 멀다.

손영자 작가


논산 쌍계사 대웅전.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